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”



보도자료

“조심조심 코리아 -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”

- ▶ 보도일시: 9.6(화) 조건
인터넷 9.5(월) 12:00 이후
- ▶ 총 2 쪽

- ▶ 담당: 서비스업 재해예방실 안원환 부장
- TEL : 032 - 5100 - 652
- ※ 참조: 문화홍보실 배준호
- TEL : 032 - 5100 - 676

‘서비스업 관련 기관 재해예방 힘모은다’ 산업안전보건공단, 서비스업 기관들과 업무협약

- 프렌차이즈 업체, 음식점, 건물관리업 등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전개된다.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백헌기)은 전체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7대 재해다발 업종을 선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 재해 예방활동에 나선다.
- 서비스업의 경우, 지난해 총 33,1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, 업종별로 제조업 다음으로 재해자가 많이 발생했다.

▪ 2010년 업종별 근로자수 및 산업재해자

(단위 : 명)

구분 \ 업종	총계	서비스업	건설업	제조업	운수창고업	기타
근로자수	14,198,748	6,295,455	3,200,645	3,196,182	711,094	795,372
산업재해자	98,645	33,170	22,504	34,069	4,365	4,537

- 특히, 서비스업 중 음식 및 숙박업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으며, 다음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, 건물 등 종합관리업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.

▪ 서비스업 산재다발 7대 업종

(단위 : 명, 2010년 산업재해자 기준)

구분 \ 업종	총계	음식 및 숙박업	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	건물 등 종합관리업	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	보건 및 사회복지사업	임대 서비스업	교육 서비스업	기타
산업재해자	33,170	7,552	6,771	4,347	2,931	2,832	2,511	1,872	4,354

○ 이에 따라 공단은 서비스업 재해가 다발하는 7대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재해예방 활동에 나선다.

- 공단은 우선, 6일(화) (사)한국프랜차이즈협회, 교촌치킨 등 12개사와 음식업종 산재예방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1(수)에는 (사)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등 5개사와 협약을 체결한다.

< 협약식 개요 >

1. 음식업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
 - 일시 및 장소 : 9.6(화) 11:00 ~ 13:00, 서울교육문화회관
 - 체결기관 : (사)한국프랜차이즈협회, (사)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, 교촌치킨, BBQ 치킨 등 12개사
2. 건물관리업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
 - 일시 및 장소 : 9.21(수) 11:00 ~ 13:00, 서울교육문화회관
 - 체결기관 : (사)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, 미림개발(주) 등 5개사

○ 협약에 따라 공단은 각 협회와 기업의 회원사,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, 자율안전점검캠페인, 안전보건 업무매뉴얼 제작 등의 공동활동을 추진한다.

○ 공단은 앞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세부 업종별 재해예방자료를 개발·보급하는 한편, 기술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○ 백현기 공단 이사장은 “서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휴업이나 폐업이 많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체계적인 재해예방 노력이 쉽지 않다”며 “이번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노력으로 재해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”임을 밝혔다.(끝)

<참고자료 - 재해사례>

- ❖ 2011. 4월 아파트 경비원인 C씨가 사다리에 올라 나무 전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부상을 당함
- ❖ 2011. 5월 서울의 한 치킨업체 배달원인 A씨.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는 중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함.
- ❖ 2011. 6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B씨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담아 옮기던 중,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음